

### 제3회 사회 교리 주간 교육자료

“교회는 그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복음의 빛으로 그것을 해석해 줄 의무가 있다.”  
(사목현장 4항, 민족들의 발전 13항, 사회적 관심 7항)

## 교황 프란치스코와 2013년 한국의 현실

“평화는 정의의 작품이며 사랑의 열매다” (사목현장 78항)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대림 제2주간을 ‘사회 교리 주간’으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으며, 2013년 제3회(12.8-14)를 맞이 하였습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신부님들의 사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3회 사회 교리 주간 교육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자료집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연설문)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우리 사회의 현안을 살펴보는 형식을 갖췄습니다. 미흡하지만 신부님들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621호

발행일 2013년 11월 25일

전 화 02) 773-1050

전 송 02) 773-1051

홈페이지 [www.catholicjp.or.kr](http://www.catholicjp.or.kr)

이메일 [jupecas@catholic.or.kr](mailto:jupecas@catholic.or.kr)

후원계좌 우리은행 454-009596-13-001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사회 교리 주간 기도문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사회 교리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11년 사회 교리 주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인준

## 차 례

제3회 사회 교리 주간 · 제32회 인권주일 담화문 / 5

### 1. 노동 및 경제 / 8

- 1) 금융과 경제의 왜곡
- 2) 인간존엄성의 원천인 노동

### 2. 평화 / 15

한반도의 평화

### 3. 무관심의 세계화 / 18

우리 사회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 4. 가난한 교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 / 23

### 5. 민주주의의 위기 / 27

국가기관의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 6. 별첨 자료 / 35

- 별첨 1 신임 대사들에게 한 교황의 연설
- 별첨 2 노동자들과의 만남(연설문)
- 별첨 3 평화를 위한 철야기도(강론)
- 별첨 4 불법이민자 밀항지 람페두사 방문(강론)
- 별첨 5 예수회 학교 방문(어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 별첨 6 국정원 관련,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262인의 선언

### 7. 주요 사회 회칙과 문헌 / 55

2014년도 사회교리학교 교육일정표 / 56

## 제32회 인권주일 · 제3회 사회 교리 주간 담화문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묵시 21, 3)

역사의 구체적 여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천명하는 것은  
교회의 구원사적 소명이며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의 전례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말씀이 사람이 되신”(요한 1,14) 강생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는 대림 2주를 인권주일과 사회 교리 주간으로 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신앙인의 지상 소명에 대해 묵상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의 존엄과 소명은 주님 강생의 신비와 맞닿아 있습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상황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천명하는 것은 교회가 따라 걸어야 할 길(<백주년> 53항)이고 가톨릭 사상의 핵심이며, 사회적 가르침의 근본 원리(<어머니요 스승> 219항)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부단히 맞서왔고 그러한 상황을 고발해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인은 하느님의 창조계획에 어긋나는 오늘의 상황을 더욱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올 한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 공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동 역시 대

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보조성 원리가 뜻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시민의 자유와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와 제한입니다. 특히 정보기관과 경찰, 그리고 군대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시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본질입니다. 국가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권력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일 따름입니다.

둘째로, 사회 경제적 영역의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고, 또한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듯이, 인간은 누구나 사회보장을 받고,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기본적인 소득을 얻어 생활을 영위할 권한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가와 사회는 법률과 제도, 정책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사회 경제적 복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정한 경쟁의 부재와 부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광범위한 빈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재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의롭고 인도적인 분배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의 독점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장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에 대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사회적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 여러 종류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도 매우 심각합니

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차별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건설의 걸림돌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이 존엄한 것은, 성경이 강조하듯이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성자께서 인간으로서 인간 가운데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고 연대(마태오 25장)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더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강생 신비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성탄대축일을 맞이해야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8일 인권주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 1. 노동 및 경제

## 1) 금융과 경제의 왜곡

### ■ 교황 프란치스코

2013년 5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을 방문한 몇몇 신임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에 걸쳐 일상이 되다시피 한 금융위기의 궁극 원인을 ‘인간의 위기’로 역설했다. 그는 세계화와 자유시장경제의 부작용쯤으로 보고 있는 금융위기가 본질적으로는 ‘돈(금융)과 인간/사회’ 사이의 왜곡된 관계를 드러낸 것이며, 그 때문에 금융위기의 본질적 원인은 단순히 시장경제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돈(금융)은 사실 사람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이 돈(금융)이 오히려 사람과 사회를 철저히 지배하는 주인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교황은 돈(금융, 자본)을 사람과 사회가 하느님 대신에 숭배하는 ‘새로운 우상’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왜곡된 관계의 회복 곧 금융 분야의 ‘사심 없는 연대와 인간 중심의 윤리’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수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수입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의 불균형은 시장의 자유와 금융투기의 자유를 절대시함으로써 공동선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갖는 국가의 적절한 통제를 부정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원문자료 별첨 1)

### ■ 현실

신자유주의 경제와 세계화는 각국의 금융시장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에 맞춰 각국은 주식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꾀하

는 경제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이런 추세는 각 나라의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생활을 가져오기보다는 심각한 폐해를 가져오고 있다. 기업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성 증대에 치중하였고, 투자자들도 장기적인 기업의 수익성보다는 단기 주가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실물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일췌며, 그 결과 대다수의 시민의 삶을 불안정 상태로 내몰거나 빈곤에 빠뜨린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현재의 복잡한 금융제도에서는 풍부한 정보력을 갖춘 금융자본에게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주고, 대신 소액 투자자(일명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미미한 수익을 안겨주거나 손실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심각한 부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라는 뜻이다.

2013년 8월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 비중은 52.82%로 연초 이후 가장 높았다. 전문가들은 ‘금융 파생상품’<sup>1)</sup>(financial derivatives)은 도박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금융 파생상품은 주식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유혹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도 많이 몰려들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수익을 내기 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한다.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오늘날 세계에서 거래되는 돈의 98% 정도는 헤지펀드<sup>2)</sup>(hedge fund), 금융파생상품 등과 같은 투기에 사용된다고 한다. 물건과 서비스를 거래하는데, 곧 실물경제에 사용하는 돈은 전체 유통량에서 지극히 미미할 뿐이다. 돈은 상품의 교환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도

---

1) 금융파생상품이란 주식, 환율, 기업채권 등을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 전통적인 금융상품 자체를 대상으로 한 상품이 아니라 금융 상품의 장래 가격변동을 예상해 만든 ‘금융상품의 가격움직임’을 상품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물, 선물환, 옵션, 스왑 등이 있으며 약 1,200종의 파생상품이 있다. 시장경제에서는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변동으로 언제든지 자산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2)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비공개로 모집하여 주로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절대수익을 남기는 펀드를 말한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도 하지만 많은 손실을 남길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구이지만, 이제는 돈이 목적이 되어 상품으로 매매되고 실물경제를 왜곡시키기까지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IMF(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 위기 이후 금융개방이 급속히 진행되었고, 해외자본이 한국 금융시장에 투자해 몇 조원씩의 이익을 챙겨나가면서 ‘먹튀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 자본은 자신의 단기이익만 챙겨갈 뿐이고, 이들의 투기로 발생한 심각한 피해<sup>3)</sup>는 사회가 책임지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금융거래세<sup>4)</sup>(Financial Transactions Tax)가 금융자본의 투기적 활동을 규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거래세는 외환시장과 주식, 채권, 차입,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 장하준 교수<sup>5)</sup>는 “복잡하게 설계된 파생금융상품의 경우 거래를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약품의 경우도 식약청의 검사를 통과해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출시할 수 있듯

---

3) 우리나라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실체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둘러싼 논란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먹튀'(먹고 튀다)란 은어가 일반에 익숙해졌다. 투기자본은 헐값 매각으로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앞세워 많은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유상감자와 고배당으로 투자 원금을 뽑고 새로운 자본에게 기업을 되파는 방식을 통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린다. 즉, 생산과 고용이라는 책무는 하지 않고 오직 단기간에 고수익만을 얻기 위해 생산설비는 팔고 노동자들은 정리하고 하는 등으로 자본축적을 한다. 쌍용자동차 정리하고 사태도 투기자본 횡포 사례다.

투기자본의 주요 횡포 사례는 브릿지증권, 메리츠증권, 서울증권, 외환카드, (주)만도, 오리온 전기, (주)오비맥주, 극동건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 하이닉스 매그나칩, 위니아 만도 등이다. (투기자본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08.12 참조)

투기자본으로 인한 개인차원의 피해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 신용불량자의 형태로 나타났다.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유연화란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

4) 금융거래세(FTT)는 유럽연합(EU)이 제안한 것으로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이 공적자금 조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FTT의 도입을 제안했고, 이를 통해 무분별하고 위험이 큰 금융상품 거래를 제약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회사의 과도한 돈잔치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TT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주식·채권·외환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과 범위를 더 넓혀 파생상품 거래에까지 거래세를 매기는 것을 두고 논의 중이나, 서울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5) <시사IN>이 2009년3월 24일(80호)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라'는 제목의 기사에 장하준 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이, 금융자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금융시장이 이익 창출만을 쫓는 투기장이 되지 않고, 공권력의 적절한 규제를 통해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금융 민주화’(금융에 대한 민주적 통제, 민주적 의견 수렴과 투명한 법제도를 통한 금융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경제영역에서 아무리 효율성이 중요하다더라도 경제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과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경제영역도 사회와 정치의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제시한다. “전 세계의 경제-금융 제도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과정을 규제하고 인류 가족의 공동선을 위한 임무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국가 및 국제 공동체가 정치적 법적 도구를 통해 맡을 책무가 있다.” (간추린 사회교리 371항 참조)

“이른바 ‘세계 자본 시장’의 조성은, 자본의 유동성 증가로 생산성 부문의 자원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에 유익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금융 위기의 위험을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금융 거래량이 실물 거래량을 훨씬 능가한 지금, 금융 부문은 경제의 실질적 토대를 무시하고 자신만을 발전의 준거로 삼을 위험이 있다.”(간추린 사회교리 368항)

“그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 된 금융 경제는 뿌리를 잃은 채 근본 목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 목표들과 상충하게 된다. 다시 말해, 금융 경제는 실물 경제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민족과 인류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할 본래의 근본적인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국제 금융 체제에서 뚜렷이 드러나는 극심한 불균형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인 양상은 더욱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걱정거리가 된다.”(간추린 사회교리 369항)

## 2) 인간존엄성의 원천인 노동

### ■ 교황 프란치스코

2013년 9월 22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 경제 위기의 큰 피해지역인 이탈리아 사디니아 섬을 방문해 세계화로 인한 높은 실업률을 걱정했다. 교황은 “사회전체와 모든 구성원들은 (인간)존엄성의 원천인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촉구하며 “품위 있는” 노동의 문화를 만들 것을 호소했다. 그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특히 “비인간적인 노동, 노예 노동,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는 노동, 피조물을 존중하지 않는 노동, 휴식이나 예배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존중이 없는 노동,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때의 주일 노동”이 증가하며, 이는 다시 힘없고 약한 사람을 더욱 고통스럽게 한다고 밝혔다. 교황은 “노동은 피조물의 보존과 결합되어야 하며, 이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책임”이기도 하다며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마음대로 착취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돌보아야 할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쳤다. (원문자료 별첨 2)

### ■ 현실

#### (1) (주)콜트악기와 콜텍(주)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는 국내 대표적인 기타 제조업체 (주)콜트악기와 자회사 콜텍(주)의 사측은 2007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경기도 부평과 대전 공장의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했다. 노동자들은 “매년 수십 수백억원의 흑자를 내던 회사가 갑자기 적자가 생겨 문을 닫게 됐다.”며 사측의 정리해고에 반발하여 부당해고 철회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과 각종 소송이 벌어지는 사이 사측은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대신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공장을 옮겼다.

콜트악기 노동자들이 정리 해고된 지 5년 만인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정리 해고가 타당성이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이미 정리해고 노동자들에게는 돌아갈 공장이 없어진 상태다. 아직까지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2011년 시작된 현장미사(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는 매월 두 번째 목요일마다 노동자들의 농성장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봉헌하고 있다.

## (2) 쌍용자동차

2009년 5월 쌍용자동차 경영진은 노동자 총인원의 36%인 2,646명을 정리 해고 하겠다고 발표했고, 노동자들은 77일 동안 파업했다. 노사는 구조 조정 대상자 중 461명을 무급휴직자로 하고 1년 뒤 생산물량에 따라 순환근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13년 1월 8일 정리해고로 인한 24번째 희생자(죽음)가 발생했다. 쌍용자동차 사장은 2013년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고자를 포함한 희망퇴직자의 복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10월 30일 쌍용자동차 이사회는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복직 등에 대한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2013년 4월 4일 24명의 쌍용자동차 희생자들의 대한문 분향소가 강제철거된 후, 4월 8일부터 11월 18일 분향소를 평택 공장 정문으로 옮길 때까지 매일 저녁 6시30분 덕수궁의 정문 대한문 앞에서 미사를 봉헌했다. 2013년 7월 20일까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15개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실시와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는 지난 해 대통령선거 이전에 여야가 이미 합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바 있다.

## ■ 교회의 가르침

정리해고는 경영이 악화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할 때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해고의 요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콜트·콜텍,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기업 활동의 위기의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가 짊어지고, 이윤의 기회는 자본 및 경영이 독차지한 셈이다. 게다가 모든 이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콜트·콜텍, 쌍용자동차 사태를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 정도로 보며 방관함으로써 결국에는 경영 및 자본의 권리는 보호되고 노동자의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공동선 실현을 위해 인간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해야 할,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정치공동체(국가)의 기본 임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노동자는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대체하는 부속물이 아니며, 더욱이 노동력을 갖는 노동자로서의 인간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다. 이에 반해 자본은 생산의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자본은 어느 경우도 노동을 앞설 수 없다. 콜트·콜텍, 쌍용자동차 사태는 생산수단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자본이 인간 존엄성의 실현인 노동을 도구로 삼은 대표적 가치전도 현상이다.

교회는 인간 노동이 경제생활의 다른 요소들(자본)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한다. 교회는 “경제 활동은 대부분 사람들의 결합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느 노동자에게든 손해가 되도록 경제 활동을 조직하고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교회는 “노동자들을 대표하고 경제생활의 올바른 질서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할 권리, 또한 보복의 위험 없이 단체 활동에 자유로이 참여할 권리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사목헌장 67-68항 참조)

## 2. 평화

### ■ 교황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31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 광장의 부활절 강복 메시지를 통해 “정치적인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큰 희생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그는 전 세계 분쟁 지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평화가 실현”되기를 청하였다. 교황은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빈다.”면서 “한반도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새로운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빈다.”고 기원했다.

2013년 9월 7일 성 베드로 광장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신 축일’ 전야 미사와 함께 열린 시리아와 중동의 평화를 위한 단식 기도회에는 10만 여 명이 참가했다.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삼종기도를 바치기에 앞서 “악에 맞선다는 것은 민족이 민족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폭력전쟁과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온갖 거짓말,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무기의 확산과 암시장에서의 무기 거래 같은 폭력적 현실에 분명하게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정말로 갈등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지, 아니면 암시장에서 무기를 팔아 이익을 취하기 위한 상업 전쟁인지 항상 의심이 남는다.”고 비판했다. 삼종기도를 마친 교황은 “평화를 위한 기도와 노력을 계속 이어가자.”고 호소하면서 레바논과 이라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의 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다. (철야 기도 강론 원문자료 별첨 3)

### ■ 현실 : 한반도 평화와 교회의 가르침

2013년 6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이 ‘한반도 평

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김연수 신부(예수회 민족화해위원회 위원장)는 “세계 5대 무기 수입국이 모두 아시아 나라인 것처럼, 아시아에서 전쟁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이 자신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신부는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게 아니며, 우리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되도록 회개해야 한다. 코스타리카는 1946년 평화헌법을 채택해 세계 최초로 군대를 철폐하고, 1983년 영구적·적극적·비무장 중립선언을 했다.”면서 평화실현에서 군비축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논평을 한 소희숙 수녀는 한반도를 영구적인 ‘비핵 평화 중립국’으로 선언하지 않는 한 강대국의 희생물이 되어 ‘영구적 분단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5.5%인 30조원이 국방비이며, 이 중에 50%가 전쟁이 나지 않으면 언젠가 폐기처분되어 쓰레기가 될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이는 데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중소 국가들은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막대한 재원으로, 강대국, 특히 미국의 폐기처분해야 될 무기쓰레기를 쌓아놓는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쟁과 평화 문제는 인간과 공동체, 사회생활 전 영역에 걸쳐 영향을 주는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지난 60년 동안 남북의 긴장으로 소모한 유형무형의 불필요한 재원은 헤아릴 수조차 어렵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은 국가의 우선 과제를 강력한 군사력에 기초한 ‘안보’와 상대방의 ‘타도’에 두었고, 막대한 재원을 국방비에 쏟아 부었으며, 그에 따라 남북한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는 유보되기 일쑤였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군사적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남북 양측의 군비증강으로 인한 상호 군사적 위협과 무력의 균형은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못하며, 이는 ‘공포의 균형’에 불과하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공포는 현실이 될 것이며, 때문에 군비증강이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315항)는 교회의 가르침은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한미, 혹은 한미일 군사동맹과 압도적인 전력 우위의 대북 압박 전략이든, 북한의 핵무장이든 군비증강은 결코 평화 증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가공할 파괴력을 갖춘 대량살상무기를 갖춘 현실을 감안하면 전쟁은 최악의 비극이며 전쟁당사국은 물론 세계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더 나아가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는 물론 신뢰구축을 통해 실질적 평화체제를 세워야 한다.

올해로 정전협정을 체결하고 60년이 흘렀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전환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쟁(군비증강)을 준비하기보다는 대화와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 3. 무관심의 세계화

#### ■ 교황 프란치스코

7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즉위 후 첫 방문지로 불법이민자 밀항지인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를 찾았다. 교황은 배들의 공동묘지라 불리는 해안 인근에서 조그만 보트 위에 제대를 마련하고 야외 미사를 주례했다. 교황은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형제를 보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련한 영혼이여!’ 그리곤 그냥 가던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소비문화는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허상에 불과한 거품 속에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무관심의 세계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오늘 이 시간 누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울고 있습니까?” (원문자료 별첨 4)

#### ■ 현실 : 우리 사회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

##### (1) 정치적 난민, 밀양 송전탑(765kV) 주민

2013년 10월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벌여 온 인권단체들은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중간발표를 했다. 감시활동 결과, 밀양에 투입된 공권력 행사는 ‘주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위법하고도 과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권력의 인권침해 양상이 통행금지, 불법 채증, 신체적이고 심리적인 폭력 행사, 공무집행시 미고지, 의사표현과 집회의 자유 침해, 식량·의약품·천막 등 생필품에 대한 통제 등 광범위하고 심각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표에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헌법적 관점에서 밀양 주민들의 기본권 박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밀양 주민들은

인간다운 생활공간에서 살 권리인 주거권, 알 권리, 건강권, 환경권, 평등권, 주민자치민주주의, 헌법이 밝히는 ‘적법절차원칙’ 등이 박탈·훼손됐다.”고. 또한 사업 진행 과정의 문제와 불법성, 폭력적 밀어붙이기는 2차 폭력을 유발하고 있으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인격권, 신체의 자유 침해 그리고 공권력 행사 과정의 불법성 등의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오교수는 “국가는 밀양 주민들로부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격을 빼앗음으로서 ‘정치적 난민’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2013년 10월 29일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는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시점인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은 5,8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과 대치하는 주민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경찰이 하루 평균 1,666명이 투입된 것은 한전의 공사는 보호하고, 주민의 권리는 제한하는 공권력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힘없는 밀양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송전탑 건설을 온몸으로 막으며 절규하는 그 시각, 도시의 시민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의 송전탑을 철거하고 송전선을 땅속에 묻었다고(지중화) 축하공연을 했다. 대량 생산된 핵발전 전력은 전국에 있는 1,600여 개의 송전탑을 잇는 고압 송전선을 통해 대도시 소비지와 산업단지로 보내야 한다. 핵발전 방식은 소비지 거주 주민의 편리함과 산업시설 지역과 관련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생산지와 송전탑 지역 주민의 불편함과 고통을 강요하는 비윤리적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

어느 나라건 핵발전소는 낙후된 변두리 지역에 건설되었다. 정부와 한전이 주장하는 대로 핵발전소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라면 수도권에 핵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며 무수한 고층건물이 있으니 그만큼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끌어다 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세워진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통해 소

비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핵발전을 묵인하고 편리함을 내세워 의존하는 한 힘없는 지역의 희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핵발전은 사회적 약자, 저발전 지역,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불의한 구조, 곧 '죄의 구조'를 갖지 않고는 유지될 수 없다. 핵발전은 교회의 길, 인간의 길이 될 수 없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013년 10월 열린 추계 정기총회에서 소책자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핵발전에 대한 한국 천주교회의 성찰」을 주교회의 이름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 'nuclear weapon'을 '핵무기'라 부르는 것처럼 'nuclear power plant'는 '핵발전소'라 하는 것이 맞다. '핵발전소'라 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라고 부르는 것은 핵의 위험과 공포를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2) 정치적 난민,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사)인권의학연구소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제주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1%가 한 가지 이상의 정신적 심리적 이상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울증, 강박증, 불안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주민들의 정신건강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 자살충동을 느낀 응답자는 31.6%이고 심각한 자살충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 위험군은 9.1%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2013년 10월 29일 공개된 제주지방경찰청의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8월부터 2013년 8월 말까지 2년간 해군기지 건설지인 강정에 배치한 경찰력은 총 20만2,620명으로 집계됐다. 육지 파견 경찰이 2년간 사용한 경비는 급식비, 운임, 숙박비 등 총 91억2,800여만원

이다.

2012년 9월 19일 인권침해조사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9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개월간 강정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찰 상주에 의한 감시와 통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제한 및 강제 구금, 진압 연행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경찰·해군·용역의 여성에 대한 폭력, 법에 대한 권리 침해, 무차별 연행의 근거인 업무방해 적용,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언론의 자유 침해, 국제 평화활동가·인권옹호자 입국금지 및 강제추방, 건설회사·용역업체의 폭력 및 채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침해조사단은 조사결과에 대해 경찰과 해군에 의한 인권침해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2013년 10월 밀양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 보고에서 밝힌 “국가는 ‘밀양’(을 ‘강정’으로 바꿀 수 있음) 주민들로부터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자격을 빼앗음으로서 ‘정치적 난민’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이다.

인권침해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대해,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평화로운 집회결사·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3인이 한국정부에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의 경위에 대한 질문을 했다. 특별보고관 3인은 한국정부가 100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자 2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공동선언을 했다. 공동선언을 하는 일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강정에서 인권침해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 ■ 교회의 활동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007년 7월 3일, 2011년 9월 15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1년 10월 10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제·수도자 총 3,711명은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 공사강행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생명평화미사’가 제주 강정 해군기지건설 공사장 정문 앞에서 매일 봉헌되고 있다.

#### 4. 가난한 교회,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회

교회는 그 본성과 사명에서 '세상'과 무관할 수 없다. '하느님 백성'인 교회는 세상 안에서 '인류 구원의 표지이며 도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는 바로 그리스도 제자들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인간 존엄성과 공동선 실현에 기여할 의무를 지닌다.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 하느님의 도구로서 교회는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간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의 의무는 국가의 제1의 의무로서 그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사회의 모든 분야(가정, 정치, 경제, 문화, 제도, 법률 …)에서 인간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 문제들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하여 인간과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다.

감사원은 2013년 1월 17일, 4년 동안 약 22조원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2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는 보의 내구성 부족, 수문의 안전성 부족, 수질 관리 부실, 불합리한 준설 계획 등을 심각한 문제로 제시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춘계(2010.3.12.), 추계(2010.10.11.) 주교회의 정기총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 교황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6월 11일 마르타의 집 성당에서 봉헌한 미사에서 "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면서 주님 찬미를 게을리 한다면 그 교회는 하느님께서 거저 주시는 자비와 구원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잃어버리고, 늘고 생명 없는 교회가 되고 만다. 진정한 복음 선포는 '가난의 길'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난한 교회를 강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10월 1일 이탈리아 일간 <라레푸블리카(La Repubblica)의 칼럼니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에 있어야 하며, 지금보다 더 가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01년 추기경에 서임되었을 때, 서임식을 축하하려고 바티칸에 가려는 많은 아르헨티나 신자들에게 ‘그 여행경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추기경 시절에는 빈민이 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판자촌에 있는 카쿠페의 성모성당에 자주 가서 미사를 봉헌하고 주민들을 만났다. 그 시절 교황은 <라 스타ampa(La Stampa)>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는 자기 틀 안에서 나와 변두리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거리로 나가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처럼 여러 사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자기 틀 안에 머물러 고립되면 늪어가기만 할 뿐입니다. 거리로 나가서 사건과 만나는 교회와 자족하고 자만하는 교회 가운데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분명 앞의 교회를 선호합니다.”고 밝혔다.

## ■ 현실 : 용산 참사

2013년 11월 7일 국세청이 제출한 ‘2012년 상속 증여세 현황(과세미달자 제외)’에는 상속재산 상위 1%의 평균은 485억2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3년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총액에 대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감소분 23조3000억원 ▷법인세 감면에 따른 감소분 5조3000억원 등 모두 28조6000억원이 전체 감세 및 감면액을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부자감세 정책을 펴는 사이 다른 쪽에서는 많은 생명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일들이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용산 참사이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20일에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가족들은 슬픔과 고통의 세월을 지내고 있다.

용산 철거지구에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사람이 죽었는데 정부나 진압을 지휘했던 책임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불에 타서 죽은 철거민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었고, 나머지 철거민들은 감옥에서 지냈다.

용산 참사가 벌어진 배경과 과정을 보면 사람보다는 자본을 얼마나 중요시 하는지 드러나고 있다. 이 참사는 철거민들의 처지나 생명보호는 무시한 채, 개발 이익과 기득권 유지만을 옹호하는 극단적 태도의 결과다.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용역들은 주민들을 빨리 내쫓기 위해서 온갖 위협과 폭력행동으로 사람이 살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이러한 폭력 행위에 대해 경찰은 방조해 왔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세입자들이 건물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새벽 경찰특공대원들이 투입되어 강제진압을 했다. 경찰은 세입자들이 도로를 향해 화염병을 던져 일반 시민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시급히 진압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을 시작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다. 진압과정에서는 이미 인화물질이 많이 있었고, 고공 농성이었는데 안전 매트리스 설치도 되지 않는 등 농성자들의 안전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태였다. 농성자들과 대화나 설득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진압을 강행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가장 우선시해서 보호해야 할 공권력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태도이다.

용산구 땅 값은 2001년 용산 부도심 개발계획 발표시점에 평당 7백만원에서 재개발이 추진된 2008년에 8천만원으로 폭등했다. 이러한 개발이익은 재개발조합, 건설사, 금융회사의 투기이익으로 돌아간다. 이곳에 살던 세입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액은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가게를 다시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가옥주 조합원들도 재입주하려면 최소 1-2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본래의 재개발사업은 원거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실제로 원거주민의 재정착율은

10-20%에 불과하다.

## ■ 교회의 가르침과 활동

집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지, 돈을 벌기 위한 투기의 공간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느님께서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사용하도록 창조”(사목헌장 69항)하셨으며, “남들은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것도 없는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재화까지를 자신을 위해서 독점해 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부당한 일이다.”(민족들의 발전 23항)고 가르친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2009년 2월 4일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임시총회를 열었고 다음날인 5일 ‘용산 참사에 대해 정부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용산 철거민 희생자 추모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서울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2009년 부활절부터 2010년 1월까지 철거민들과 매일미사를 봉헌했고, 2010년 2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 ‘용산 철거민과 함께하는 생명평화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14일 첫 미사 강론에서 “예수를 증거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 동정심 많은 비정부기구(NGO)에 불과하다.”며 교회의 본성과 사명을 강조했다. 교회가 예수를 증거 하는 길은 가난한 교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 5. 민주주의의 위기 : 국가기관(국가정보원·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의 선거개입과 민주주의

### ■ 교황 프란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6월 7일 예수회 학교 방문에서 어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의무임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므로, 자애(charity)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문자료 별첨 5)

### ■ 현실

#### (1) 국가기관(국가정보원·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의 대통령 선거 개입

국정원 누리집에는 “국가정보원은 국가안보 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받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 국가정보원은 앞으로도 원훈(院訓)인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실천하며, 언제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힌다.

그러나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등 국가기관들의 이번 선거개입으로 드러난 바는 ‘특정 정치인·정치세력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이들을 적으로 몰아가 사회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담당했다는 점이다.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기관들이 유

권자들의 의견 형성에 필수요건인 공정한 정보 제공을 막고 일방적이고 조작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가치인 민주주의·국민주권(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훼손한 것이다.

### ① 사건일지 및 개요

- 2012.12.12. 민주당은 국가정보원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 2012.12.16. 경찰은 대통령 선거 사흘전날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 발견 못했다”고 발표했다.
- 2012.12.19. 대통령 선거
- 2013.4.18. 경찰은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으로 사실상 정치에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2013.6.14.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이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사건 축소 은폐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 2013.7.24.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 2013.9.13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지난 6월, 채동욱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 2013.10.17.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트위터를 통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체포했다. 다음날인 18일,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 2013.10.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정치개입 트위터 글 5만5689건 게시 혐의를 추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국정원이 2011년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자동 리트윗(재전송)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트위터로 퍼뜨린 글은 현 집권당 대선 후보의 이미지·정책·후원계좌를 집중 홍보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또 야당후보와 예비후보에 대한 중복몰이, 지역감정 조장, 흑색 선전,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 2013.10.20 국방부 검찰단·헌병(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진상조사에서 '2012년 총선·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정치 관련 인터넷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으로부터 2012년 예산 120억원 중 45억원, 2013년 255억원 중 57억원을 받았다.
  - 2013.10.24. 국가보훈처의 보훈교육자료집 <호국과 보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중복·좌익'으로 규정하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성향 야당의 정권창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6월 발행된 이 자료집은 2013년 8월까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공무원, 보훈대상자 가족 등의 안보교육에 사용됐다.
  - 2013년 11월 6일 안전행정부의 '2012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채택된 보수단체 가운데 15곳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실행계획서'에는 대선을 앞두고 SNS(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한 대선 선거 선전 활동을 벌였고, 정부가 여기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보수단체의 SNS 교육에는 육군 교육사령부 교관들도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 ☐ 19대 대통령 선거 유세시기에 현 집권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의 일부 표현을 인용했다는 것은 '대화록'을 당시 이미 입수했음을 보여준다.
- ☐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의 중대한 범법행위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지

만, 당사자인 국정원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통령은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② 사건의 본질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19대 대통령 선거 개입은 국가 공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훼손한 심각한 불의이다. 왜냐하면 국민투표는 국민들이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참여의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체제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고, 통치자들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필요하다면 평화로운 방법으로 교체할 권한을 부여한다. 시민이 책임감을 갖고 정치생활에 참여하려면 윤리적 정보 접근이 필수적이다. 이점에서 국정원·국군 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국가기관이 시민들의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훼손한 비민주적·반헌법적 행위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이 저지른 선거개입을 무마하기 위해 대선 며칠 전에 허위 발표한 것 역시 심각한 불의다. 국가 공권력은 인권과 시민 생활의 규범을 해치는 행위를 막고 형벌 제도를 통해 범죄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불법을 저질렀다.

정치권위(공권력)는 공정한 법, 말하자면 인간의 존엄과 이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으로 국민에 봉사해야 한다(법치주의). 국정원 사태는 국가 공권력이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한 것이며, 대중매체를 통해 중간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는 등, 공권력이 대중매체를 이용해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시민들의 책임 있는 참여를 가로막았다. 전체 민주주의에 심각하게 위협한 사건이다.

## (2) 국가정보원 ‘국가기밀문서’ 불법공개 사건

### ① 사건일지 및 개요

- 2012.12.10. 권영세 주중대사(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는 한 식당에서 “우리가 집권하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까겠다.” 고 말했다.
- 2012.12.14. 부산 대선유세 현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의 표현을 그대로 읽었다.
- 2012.12.19. 대통령 선거
- 2013.6.24. 국가정보원(원장 남재준)은 비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뒤 공개했다.

### ② 사건의 본질

공권력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동선을 추구하고 도덕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에는 전임자가 남긴 여러 문서를 국정 운영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되, 정략적 이용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문서를 분류하여 공개 기간과 공개 조건을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 놓았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사명은 중요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지 이를 공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1급 국가기밀문서인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문서등급을 낮추어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이를 공개했다.

현재의 집권당은 국가기밀문서를 입수 왜곡·편집해 선거운동에 활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입법부는 행정부 기관인 국정원의 권력남용에 대해 견제하지 못하는 무능함을 드러내고, 사법부는 국가기관과 특정정당의 국가기밀문서의 불법 유출·입수·공개한 행위를 수수방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법치를 포기했다.

언론의 기본 역할은 ‘공정보도’(윤리적 정보의 생산과 유통)를 통해 시민들이 진리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한 윤리적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올바른 판단과 참여를 돕는데 있다. 국가 공권력인 국정원의 민주주의 훼손 행위(정치개입 및 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언론은 감시·견제 역할을 소홀히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에 한 몫을 한 셈이다.

☐ 국정원의 ‘국가기밀문서’ 공개 사건은 국가의 안보와 국익보호를 위해 시민들에게 봉사해야 할 국가권력기관과 정당이 공개적으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건이다.

## ■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정당하다.”고 가르친다.(사목헌장 76항) 교회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안에서 인간 세상의 모든 분야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가운데 그 고유의 사명이 요구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 질서를 포함한 세상의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다.

“사회의 모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안에 내재되어 있으며 인간의 진정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근본적으로 진리, 자유, 정의, 사랑이

다. 이 가치들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자기완성을 이루고 인간다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확실하고 긴요한 방법이다. 그러한 가치들은 ‘경제, 정치, 문화, 기술의 본질적 개혁과 필요한 제도의 개혁을’ 이루도록 부름 받은 공권력의 필수적인 준거가 된다. 교회는 … 사람들이 내린 여러 가지 결정들 안에 이러한 가치들이 어떻게 수용되고 배척되는지 보여주고자 현세 질서에 개입한다.”(간추린 사회교리 197항)

### ■ 교회의 활동 : 국정원 사태 천주교 시국선언

- 2013.6.21.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과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회사목부 등 천주교 평신도·수도자 단체들,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검찰·경찰의 축소수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 발표.
- 2013.7.25. 부산교구 사제 121인,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불법 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
- 2013.7.29. 마산교구 사제 77인
- 2013.7.31. 광주교구 사제(246인)·수도자(259인) 505인
- 2013.8. 7. 인천교구 사제 160인
- 2013.8. 8. 전주교구 사제 152인
- 2013.8.14. 대구교구 사제 103인
- 2013.8.14. 안동교구 사제 66인
- 2013.8.14. 대구·경북지역 수도자 337인
- 2013.8.14. 대전교구 사제 141인
- 2013.8.15. 원주교구 사제 57인
- 2013.8.20. 수원교구 사제(304인)·수도자(323인) 627인
- 2013.8.21. 서울교구 262인(8.26 최종 265인)
- 2013.8.26. 한국 천주교 수도자 4,502인
- 2013.8.27. 제주교구 사제(56인)·수도자(106인) 162인
- 2013.8.29. 청주교구 사제 119인

- 2013.9. 2. 춘천교구 사제 91인
- 2013.9. 4. 의정부교구 사제 157인
- 2013.9.11. 천주교 평신도 1만인 시국선언 11,637인  
(이상 9월 11일 기준)
- 2013년 9월 12일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상임회의 및 정기회의 결과 :  
위원회는 최근 일어난 이석기 의원 사태 등으로 문제의 본질이 흐려져서  
는 안 되며, 국정원 사태로 인해 훼손된 민주주의의 가치는 반드시 회복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향후 위원회 또는 교회 차원의 입장을 정  
리하여 발표하도록 결정하였다.



(사진 : 2013.9.23. 전국 시국미사, 서울시청 광장)

## 6. 별첨 자료

### <별첨 1>

[이 글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5월 16일 바티칸을 방문한 세계 각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첫 인사와 마지막 인사말을 제외한 연설문 전체를 박동호 신부(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가 번역했다.]

### 신임 대사들에게 한 교황의 연설

여러 분야에서 성취한 업적을 볼 때, 인류 가족은 지금 중대한 역사의 전환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건, 교육, 통신 같은 분야 따위에서 참된 인류 복지 증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 대다수의 사람들이 매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바라봐야 합니다. 심리적인 결과를 수반하는 여러 병리현상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옥죄고 있습니다. 잘사는 나라에서조차 그렇습니다. 삶의 기쁨은 사라지고 있으며, 타락과 폭력은 그 도를 더해갑니다. 빈곤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그것도 빈번하게 굴욕적인 방법으로라도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런 상황은 우리가 돈과 맺는 [왜곡된]관계에서, 즉 돈이 사람과 사회를 지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오늘날 경험하고 있는 금융위기의 궁극적 원인을 잊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의 위기에서 금융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먼저라는 것을 부정하는 그 위기에서 금융위기의 궁극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이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구약의 황금송아지 숭배가 (탈출기 32,15-34 참조) 오늘날 돈 숭배와 어떠한 인간적 목표도 갖지 않는

정체불명의 경제 독재 속에서 새롭고 냉혹한 이미지를 갖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전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는 금융과 경제의 왜곡이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금융과 경제는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금융과 경제는 사람을 오직 무엇인가를 필요로만 하는 존재로, 즉 소비만 하는 존재쯤으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간 그 자체를 사용하고 내다버릴 수 있는 소비재쯤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내다버리는 문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향은 개인과 전체 사회 차원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며, 그 정도는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보물인 연대성(연대의 정신)은 반생산적인 것으로, 금융과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수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수입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시장의 자유와 금융 투기의 자유를 절대시함으로써, 결국 공동선을 증진해야 할 책임을 갖는 국가의 적절한 통제의 권리를 부정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서 나타난 결과입니다. 눈에 띄지 않고 때로는 공공연한 새로운 독재가 구축되었습니다. 이 독재는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자체의 법과 지배력을 일방적으로 행사합니다. 부채와 신용은 국가와 국가의 실물경제를 분리시키고, 시민을 시민의 실질 구매력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세계적 차원을 띠고 있는 부패와 이기적 탈세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권력과 소유의 의지는 무한 확장되었습니다.

이런 태도 뒤에 숨어있는 것은 윤리의 거부, 일종의 하느님 부정입니다. 연대성 같은 윤리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윤리는 반생산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돈과 권력을 상대화시키기 때문에 윤리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그 무엇쯤으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윤리는 인간을 조종하고 종속시키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봅니다.

윤리는 하느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은 시장의 범주들 밖에, 즉 시장 논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금융인들, 경제학자들, 정치인들은 하느님을 경영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경영할 수도 없으며, 더 나아가 위험한 존재로 여기는데, 하느님은 인간을 완전한 자기완성으로, 어떤 형태의 예측으로부터의 독립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으로 윤리(당연히 이데올로기의 윤리가 아닌)는 보다 인간적인 균형 잡힌 사회질서를 창조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금융 전문가들, 정치 지도자들이 요한 크리소스토모 성인의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강탈하는 것이며 그들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라자로에 관한 강론, 1,6 - PG 48, 992D)

경제 개혁,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경제 개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금융 개혁이, 윤리적 노선을 따르는 금융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태도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나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기 나라의 특정 상황을 고려하면서 확신과 장기전망을 갖고 이 도전에 응하라고 촉구합니다. 돈이 [사람을] 섬겨야 하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교황은 부자건 가난하건 똑 같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자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재촉해야 할 의무, 가난한 사람을 존중해야 할 의무, 가난한 사람을 복돋워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교황은 금융과 경제 분야에서 사심 없는 연대와 인간 중심의 윤리에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교회는 항상 모든 사람의 전인적 발전을 위해 일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공동선이 단순한 여분의 무엇이 아니며, 단순히 정치 프로그램에 덧붙여진 부수적 관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교회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민의 공동선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하라고

격려합니다. 교회는 금융 지도자들이 윤리와 연대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왜 그들이 하느님께서 설계한 것에서 그 영감을 퍼 올려서는 안 되는지, 왜 하느님을 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윤리를 향한다면, 하느님을 향한다면, 경제와 사회 영역 사이의 벌어진 절대적 이분법을 극복하고, 건강한 공생의 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고체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목자들과 가톨릭 공동체의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기쁘고 용감하게 형제적 사랑과 신앙을 실천하기를 촉구합니다. 교우들은 성경에서 영감을 받아 주도적인 태도로 자기 나라의 [참된]발전에 두려움 없이 기여해야 합니다!

<별첨 2>

## 교황 프란치스코, 2013년 9월 22일 사디니아 섬 방문 노동자들과의 만남 (연설문)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본 행사(2013년 9월22일)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서 인쇄를 위해 카글리어리의 대주교에게 건넨 원고이다.]

저는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사항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과 노동을 중심에 되돌려놓으십시오. 경제위기는 유럽의 차원과 세계의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경제뿐만 아니라, 윤리, 영성, 인간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의 뿌리에는 개인들과 권력집단 모두에게서 공동선에 반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태까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소득과 이익의 법칙을 밀어내고 사람과 공동선을 중심에 되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분명히 노동입니다. 인간의 참된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노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을 보장하는 이 과업은 사회 전체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가들의 큰 공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원의 문화와 함께 형성되는 노동의 문화는 젊은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노동 교육, 노동의 지침, 모든 노동활동에 대한 존엄성, 분담노동, 그리고 모든 불법노동의 퇴치 등을 수반합니다. 사회전체와 모든 구성원들은 존엄성의 원천인 노동을 주요 관심사로 삼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섬 생활 조건은 모든 이에게 이 공동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정치 및 경제 기구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희망의 복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디니아 섬은 인간과 환경자원을 가진 하느님께서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새 출발을 위한 새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생명의 복음적 비전을 갖고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저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2008년 카글리어리를 방문했을 때 하신 말씀을 상기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세계, 경제의 세계, 정치의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윤리의식을 갖춘 유능하고 헌신적인 새로운 평신도 세대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법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 경제, 정치 분야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이 필요합니다.”(보나리아의 성모 성지에서의 강론, 2008년 9월 7일) 사디니아의 주교님들은 이런 상황들에, 특히 노동의 복음화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주교 여러분! 여러분은 진지하고 현실적인 식별의 필요성을 제시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방문에 내놓은 메시지에서 밝힌 것처럼, 희망의 여정을 향하고 있기도 합니다. 희망이야말로 중요하며, 올바른 태도입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현실을 연구하십시오. 현실을 이해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통합할 길들을 찾으십시오. 이 때 협력과 대화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희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서로 결합하십시오. 절대로 희망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희망을 낙관주의와 혼돈하지 마십시오. 낙관주의는 심리적인 태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희망을 다른 것들과도 혼돈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창조적입니다. 희망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이를 위한 품위 있는 노동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희망에 개방된 사회는 사회 자체를 위해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다. 폐쇄된 사회는 그 안에서 소수의 이익을 옹호할 뿐입니다. 희망에 개방된 사회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앞을 내다봅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부문에서 강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품위 있는 고용이 없다면 사회적인 희망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정적 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혹은 그것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베네딕토 16세, 진리안의 사랑, 32항)

저는 “품위 있는” 노동을 말했고, 이를 강조합니다. 불행히도, 특히 위기가 발생하고 빈곤한 자가 긴급할 때에 비인간적인 노동, 노예 노동,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는 노동, 피조물을 존중하지 않는 노동, 혹은 휴식이나 예배 그리고 가정생활에 대한 존중이 없는 노동,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때의 주일 노동 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노동은 피조물의 보존과 결합되어야 하며, 이는 미래 세대들을 위하여 책임감 있게 수호되어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 마음대로 착취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돌보아야 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생태적인 삶은 그 자체로 에너지문제나 여러 형태의 오염의 예방과 제거, 여러분의 유산인 삼림지대의 산불에 대한 경계 등과 같은, 그것에 연관된 분야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게 합니다. 피조물을 돌보는 것과 품위 있는 노동을 통해 인간을 돌보는 것이 공동의 과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태계 … 그리고 “인간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과 보나리아의 성모님 손에 여러분의 모든 걱정들과 근심들을 봉헌하면서 특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예수님은 “당신의 손으로 일하셨다. 실제로 육체노동이었던 그분의 노동은 지상에서 그분 삶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렇게 인간과 세상의 구원 사업에 들어오셨다.”고 강조했습니다.(터니 노동자들에게 한 연설, 1981년 3월 19일 : 로세로바로테 로마노지 영문판, 1981년 3월 30일, n.4, p.6) 근면과 헌신 그리고 능력으로 자신의 노동에 전념하는 것과 노동에 익숙해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무상의 증여와 연대성의 논리에 따라, 지금 같은 부정적인 국면에서도 무상의 증여와 연대성이 드러날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안전하고 품위 있으

며 안정적인 고용이 보장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박동호 신부 번역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별첨 3>

## 2013년 9월 7일, 교황 프란치스코의 평화를 위한 철야기도

(강론)

“그리고 주님께서 보시니 그것은 좋았다”(창세기 1:12,18,21,25). 세상과 인류 역사의 시작에 대해 성경은 창조를 바라보고, 어떤 의미로는 그것을 성찰하고, 그리고 “좋다”고 선언하시는 주님께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분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 정확히는 그분 안에서, 그분의 정신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줍니다. 우리는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하고 말입니다.

1.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조화와 평화의 집”입니다. 그것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이가 자신에게 맞는 자리를 찾을 수 있고,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든 피조물은 조화롭고 선한 일치를 이루지만, 특히 주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은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 관계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애를 특징으로 합니다. 다른 사람은 사랑해야 할 나의 형제이며 누이입니다. 사랑과 충실함과 선함이신 하느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를 비추며 피조물 전체에 조화를 가져옵니다. 하느님의 세상은 모든 사람이 타인과 타인의 선익을 위한 책임을 느끼는 세상입니다. 우리 각자는 이 밤, 묵상, 단식과 기도 안에서 마음 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세상일까?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세상일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타인과의 관계들 안에서, 가정들 안에서, 도시

들 안에서, 국가들 내부와 국가들 사이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조화와 평화의 세상일까? 참된 자유란 이 세상에서 모든 이를 선으로 인도하는 길들을, 그리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길들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합니다.

2. 그런데 우리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일까?’ 창조는 우리를 경외심으로 채우는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선한 일을 지속합니다. 그러나 “폭력, 분열, 반대, 전쟁”도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의 정점인 인간이 미(美와) 선(善)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이기심으로 후퇴할 때 발생합니다.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을 중심에 둘 때, 그가 스스로 지배와 권력의 우상에 사로잡힐 때, 그가 스스로를 하느님의 자리에 둘 때, 모든 관계들은 파괴되고 모든 것은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폭력, 무관심, 그리고 갈등의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창세기가 타락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과 갈등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별거벗고 있으며 숨으려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이는 스스로 두려웠기 때문이며(창세기 3:10), 하느님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몸에서 나온 몸인 그 여인을 고발합니다(12절). 그는 이제 피조물에 대한 조화를 깨버리고, 형제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가 조화에서 “불화”로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불화”같은 것은 없습니다. 조화가 있거나 아니면 혼돈으로 빠지는 것뿐입니다. 폭력, 분쟁, 갈등, 두려움 ... 등이 있는 혼돈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양심에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입니다. “너의 형제인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카인은 “모릅니다, 제가 진정 제 형제나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기 4:9)하고 응답합니다. 우리 역시 같은

질문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진정 나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화가 깨질 때, 변형이 발생합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형제가, 싸우고 죽여야 할 적이 됩니다.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종류의 폭력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전쟁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얼룩지게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형제자매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보아야만 합니다. 이는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폭력 행위와 전쟁에서 수많은 카인을 불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형제들 간에 이 갈등의 역사를 계속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 대해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상, 이기심, 자신만의 이익에 스스로 지배받고 있으며, 이런 태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기들을 더 완벽하게 만드는데 성공했고, 그 대신 우리의 양심은 잠들었으며,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발상들만을 개발해왔습니다. 그것이 마치 정상인 양, 우리는 파괴, 고통, 죽음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은 오직 죽음으로 이끌 뿐입니다. 폭력과 전쟁은 죽음을 찬미합니다. 폭력과 전쟁은 죽음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대홍수의 혼돈 이후, 비가 그쳤을 때, 무지개가 나타났고 비둘기가 올리브 가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도 2000년에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디메요 광장에서 여러 종교의 대표들이 더 이상의 혼돈과 더 이상의 전쟁이 없기를 희망하고, 평화를 청하며 심은 그 올리브 나무를 생각합니다.

3. 이 시점에서 저는 자문합니다. ‘평화의 길을 걷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슬픔과 죽음의 소용돌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로마 백성의 구원이신 평화의 모후의 모성적 시선 아래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에게 가

능합니다!’ 저는 오늘밤 세계 전역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이에게 가능합니다!’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국가를 통치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가장 약한 사람에서 가장 힘 센 사람에게까지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의 그리스도교적 신앙은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촉구합니다. 잠시만이라도 좋습니다. 선의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제가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응답을 알 수 있습니다. 폭력에 폭력으로 응답하지 않았고, 죽음에 죽음의 언어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침묵 속에서 무기의 광란은 멈추고, 대신 화해, 용서, 대화와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종교의 우리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선의의 모든 사람들이 힘차게 외칠 것을 요청합니다. ‘폭력과 전쟁은 결코 평화의 길이 아닙니다!’ 하고 말입니다. 모든 이가 자신의 양심 깊은 곳을 바라보고, 말씀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너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사리사욕을 물리치고, 타인에 대한 너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하는 무관심을 극복하며, 죽음을 몰고 오는 생각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 대화와 화해로 나서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의 슬픔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우선 어린이들을 생각합니다. 이 어린이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형제의 슬픔을 보십시오. 손을 대되 슬픔을 보태지 말며, 무너지고 있는 조화를 다시 세우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갈등이 아닌 만남으로 이루십시오. 무기의 소음이 중단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쟁은 항상 ‘평화의 실패’라는 흔적을 남기며, 그것은 인류에게는 언제나 패배일 뿐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합시다. “더 이상의 적대관계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결코 안 됩니다! … 전쟁은 결코 안 되며, 절대로 전쟁은 안 됩니다!”(국제연합 연설, 1965) “평화는 평화 중일 때만 나타납니다. 평화는 정의의 요구로부터 분리되지 않지만, 인간적인 희생과 관용, 자비와 사랑으로 증진됩니다.”(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

1975) 형제자매 여러분, 용서와 대화와 화해야말로 사랑하는 시리아와 중동 그리고 전 세계의 평화의 언어입니다! 이 밤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합시다. 우리 모두 어느 곳에서나 화해와 평화의 사람이 됩시다. 그렇게 되도록 기원합니다.

박동호 신부 번역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별첨 4>

## 교황 프란치스코, 2013년 7월 8일 람페두사 방문 (강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7월 8일 방문한 이태리 람페두사 '불법이주자 수용소'에서 행하신 강론 말씀을 중요 부분만 열추 우리말로 옮겨 나눕니다. 문규현 신부]

'이주자들이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다. 희망의 배가 죽음의 배가 되고 있다.'

... 수 주 전 이 비극에 대해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비극이 빈번하다는 걸 알고 난 뒤부터는 졸곧 심장이 가시로 찢리는 듯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또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양심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제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나 저는 먼저 여러분들, 람페두사와 리노사의 사람들, 여러 연대단체들, 봉사자들과 안전요원들 등,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향해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소수입니다만, 연대의 본모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략)

우리 현대인들은 이웃 형제자매들에 대한 책임감을 상실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언급하신 사제와 레위인의 위선에 빠져버렸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형제를 보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가련한 영혼이여!" 그리곤 그냥 가던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랑스럽지만 허상 가득한 비누거품 속에 살도록 합니다. 그것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덧없고 공허한 망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참으로 ‘무관심의 세계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화 된 세상에서 세계화된 무관심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영향 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내 일이 아니야! 하고 말입니다. 무관심의 세계화는 우리 모두를 무책임한 ‘익명의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중략)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카인아) 네 아우는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인간 역사의 여명기에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던지신 두 가지 질문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의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세 번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누가 이들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여기 형제자매들의 죽음에 누가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의) 배를 탄 사람들을 위해 누가 울고 있습니까? 어린 것들을 안고 있는 이 젊은 엄마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이 남자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할지를, 어떻게 연민을 경험해야 할지를 잊었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고통” 말입니다.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에게서 슬퍼하는 능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중략)

헤로데는 자신만의 안락함을 보호하려고 죽음의 문화를 뿌렸습니다. 그 자신의 비누거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숨어있는 헤로데를 없애 주십사 주님께 청합시다. 우리의 무관심을 슬퍼하고, 세상과 우리 마음의 야만성을 슬퍼하며, 또한 지금과 같은 비극적 상황을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결정들을 용납하는 익명성의 야만에 슬퍼하는 은총을 주십사 주님께 청합시다. “누가 울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서 누가 울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당신의 물음을 듣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 형제의 피는 어디 있느냐?”

<별첨 5>

## 교황 프란치스코, 2013년 6월 7일 예수회 학교 방문에서 한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겐 의무(obligation)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고로, 자애(charity)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마 “그게 쉽지 않아요!” 하고 말할 겁니다. 사제직도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쉬운 게 없습니다. 정치가 너무 타락한 탓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입니다.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가르치는 것도 그 중 하나죠. 그럼에도 정치적 생활은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길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문규현 신부 번역(전주교구 은퇴사제)

<별첨 6>

## 국정원 관련,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 262인의 선언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루카 10,37)

교회는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민주주의가 “시민들에게 정치적 결정에 참여할 중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피지배자들에게는 지배자들을 선택하거나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평화적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는 법치 국가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인간관의 기초 위에 성립한다고 교회는 가르친다.(요한 바오로 2세, 회칙 백주년 46항 참조)

“진정한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존중, 정치생활의 목적이며 통치 기준인 공동선에 대한 투신과 같은 .... 가치들을 확신 있게 수용한 열매이다.” 국가권력(공권력)의 존재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류역사는 ‘개인들의 독단적 의사’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법치주의’로 극복하고,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입법, 사법, 행정의 공권력)으로 균형과 견제를 발전시켜왔다.(『간추린 사회교리』, 407항, 408항 참조) 마침내 우리는 이를 ‘민주공화(民主共和)’라고 이름 한다.

그러나 교회는 현실에서 어떤 정치체제도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바로 ‘죄의 구조들’의 존재 때문이다.

하느님의 뜻과 이웃의 선익에 반하는 태도와 행동들, 그리고 그것들로 구축된 “죄의 구조들”, 그 안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든 이익을 집어삼키려는 욕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쟁취하려는 권력에의 욕망이 강렬하게 꿈틀거리고 있다.(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37항 참조) 가히 경제독재와 정치독재라 할만하다.(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37항 참조)

사실 우리의 근현대사는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공화’를 실현하려는 힘겨운 과정이었다. 인간의 존엄을 확인하고, 인권을 발전시키며,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짊어졌는지 우리는 그 분들의 희생에 빛을 졌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망각한다.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해 국가권력을 독점한 폐쇄적 지배집단”(「백주년」, 46항)이 ‘민주공화’를 얼마나 심각하게, 얼마나 끈질기게 왜곡했으며, 깊은 상흔을 남겼는지를... 일제강점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폐쇄적 지배집단”은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은밀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민주공화’를 부정한다.

부끄럽게도 우리는 ‘죄의 구조들’에 대해 때로는 강압에 의해 침묵하거나, 때로는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그 확장을 돕는다.

‘정보’도 그 한 몫을 한다. 교회는 ‘정보’가 민주적 참여를 위한 주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그러면서 “정보의 객관성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들이 조종하고 있는 뉴스 미디어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에, 정치 활동, 금융기관, 정보기관들의 유착까지 더해지면, 이는 전체 민주주의 제도에 위협한 결과를 미친다.”(「간추린 사회교리」 414항) 고 경계한다.

이른바 ‘국가정보원’과 관련된 일련의 ‘새로운 사태’는 “죄의 구조들”이 ‘민주공화’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이에 우리의 무감각과 “정보의 비윤리성”(「간추린 사회교리」 416항 참조)이 가세한 것이다.

첫째, 국민이 “국가안보수호와 국익증진의 사명”을 부여한 ‘국가최고의 정보기관’이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을 포기하면서까지, 국가안보와 국익의 토대인 ‘민주’의 가치를 허물어뜨렸다.

둘째,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관의 이 권력남용 행위에 대해 아무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으며, 오히려 침묵으로써 방치하거나, 왜곡으로써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를 정쟁으로 희석함으로써 공동선을 무너뜨렸다.

셋째, 국민을 위한 봉사의 목적에서 일탈한 행정부를 바로잡아야 할 입법부의 무능함과 사법부의 수수방관은 ‘법치’를 적극적으로 포기한 것이다. 그렇게 ‘삼권’이 협력함으로써 “폐쇄적 지배집단”은 강화되어 절대 권력화를 도모했다. 모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위기에 내몰린다.

넷째, 대중매체가 ‘상황과 사실들과 제시된 문제 해결책’을 객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책임 있는 공공생활 참여에 기여하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데올로기, 이익추구, 정치적 통제 욕심, 집단 간의 경쟁과 알력, 기타 사회악” 때문일 수도 있겠고,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잘못 이용되는 돈 벌이 사업”(「간추린 사회교리」 416항)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대중매체가 “공동선을 위해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간추린 사회교리」 415항)하지 않는다면, 대중매체 역시 “폐쇄적 지배집단”에 부역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

다섯째, 오늘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과 “무슨 수를 써서라도”지배 권력을 쟁취하려는 욕망이 그렇게 강력하게 결합한 ‘죄의 구조들’은 버젓이 시민의 “옷을 빼앗고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도 태연하다.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리는” 사제가 될 수는 없다.(루카 10.29-37)

‘모든 인간의 존엄’, ‘인권존중’, ‘공동선에 대한 투신’을 내놓고 길을 떠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자.

2013년 8월 21일

(2013.8.21. 현재 262명    2013.8.26. 현재 265명)

## 7. 주요 사회 회칙과 문헌

- 새로운 사태 : 1891년, 교황 레오 13세 회칙
- 사십 주년 : 1931년, 비오 11세 회칙
- 어머니요 스승 : 1961년, 요한 23세 회칙
- 지상의 평화 : 1963년, 요한 23세 회칙
- 종교 자유에 관한 선언 「인간 존엄성」 :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 196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 민족들의 발전 : 1967년, 바오로 6세 회칙
- 팔십 주년 : 1971년, 바오로 6세 교서
- 세계 정의 : 1971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2차 총회 문헌
- 노동하는 인간 :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 사회적 관심 : 1987년,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 백 주년 : 1991년,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 진리 안의 사랑 : 2009년, 베네딕토 16세 회칙
-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실천 - 환경에 대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지침서 : 2010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헌

## 2014년도 사회교리학교 교육일정

제 목	교 재	기 간	시 간	장 소	수 강 료
제97차 응용과정	세상 속의 그리스도 1편, 2편, 3편 기타 자료	1월9일-3월6일 (매주 목, 8주간)	19:00-21:00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50,000원
제98차 기본과정	가톨릭사회교리 주제편 가톨릭사회교리 문헌편	2월3일-5월12일 (매주 월, 13주간)	19:00-21:00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50,000원
제99차 응용과정	세상 속의 그리스도 1편, 2편, 3편 기타 자료	6월2일-6월25일 (매주 월/목, 4주간)	19:00-21:00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50,000원
제100차 기본과정	가톨릭사회교리 주제편 가톨릭사회교리 문헌편	9월15일-12월8일 (매주 월, 13주간)	19:00-21:00	가톨릭회관 1층 강당	50,000원

☒ 수강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454-009601-13-00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우) 100-809 서울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621호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전화 : 02)773-1050    팩스 : 02)773-1051    홈페이지 : [www.catholicjp.or.kr](http://www.catholicjp.or.kr)



공사중인 밀양 765kV 송전탑

출처 : 연합뉴스

 **전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번지 가톨릭회관 621호  
전화 02)773-1050 전송 02)773-1051 [www.catholicjp.or.kr](http://www.catholicjp.or.kr)

제 3 회 사 회 교 리 주 간 교 육 자 료

천주교 서울대학교구 정의평화위원회